

우방산업, 혹서기 대비 온열질환 예방 안전보건 활동 펼쳐

기사입력 2023-07-10 14:30:29



[대한경제=홍싯별 기자] SM그룹은 건설부문 계열사 우방산업이 여름 무더위 속 ‘온열질환자 ZERO’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활동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우방산업은 올 여름 이른 더위와 함께 온열질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온열질환 예

방을 위한 ‘휴식 알리미 스티커’를 제작해 모든 현장에 적용, 혹서기 안전보건 예방대책을 수립했다.

우방산업은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국내 온열질환자 현황을 확인하고 기후환경적인 요인이 건설 현장 중대재해와 온열질환자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휴식 알리미 스티커’를 적용해 사전 사고 방지 예방책을 도입했다.

우방산업은 사고사망만인율이 0.0‰(퍼밀리아드)로 중대재해 없는 건설사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국제규격인 ISO 45001 인증과 안전보건경영체계의 구축상태 우수함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조유선 우방산업 대표이사는 “대한민국의 폭염일수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온열질환 예방활동이 특정 회사의 재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온열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셋별 기자 byul0104@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부

기자의 다른기사

홍셋별 기자

✉ byul0104@dnews.co.kr



Powered by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그인 | PC버전보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제호 : 대한경제 / 신문등록번호 : 서울 가00237 / 발행·편집인 : 박승준
등록일자 : 2008년 10월 21일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12층
구독문의 547-6494~5 / 대표번호 : 02-547-5080 / 청소년 보호책임자: 장세갑
대한경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 대한경제 All rights reserved.